

폴란드, 재무장관 돌연 사임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커져

□ Belka 재무장관, 돌연 사임

- 지난 7월 2일 갑작스럽게 Belka 재무장관을 포함한 일부개각이 발표됨으로써 폴란드 경제는 즐로티(zloty)貨와 채권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충격에 휩싸였음.
- Miller 총리는 언론 발표를 통해 Kolodko를 신임 재무장관으로 기용하는 한편, 문화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교체 사실도 알렸음. 이번 개각의 이유에 대한 Miller 총리의 언급은 없었으며, Belka는 육체적 피로 때문에 사임한다고만 밝혔음.
- Belka의 사임 시기가 2003년 예산안 제출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Belka의 사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Belka는 사임하기 며칠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제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경우 사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런 관측에 설득력이 있음.

□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임

-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던 민주좌파연합(SLD)의 Miller 총재가 親시장주의자인 Belka를 재무장관에 기용키로 발표하자, 경제계는 크게 환영한 바 있었음.
- 그러나 입각 후 엄격한 긴축 및 구조조정정책과 적극적인 EU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Belka의 언급으로 극우 및 극좌파가 대거

부상하고 SLD는 예상외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SLD 내에서도 Belk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 Belka는 꾸준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판을 얻었으며, 금년 초에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1%로 동결할 것을 밝힌 바 있음. 최근 사임 직전에도 Belka는 2003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2%인 400억 zloty(96억 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폴란드 경제의 회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요구하는 내각의 압력으로 내년도 예산적자가 430억 zloty로 확정되었고 이는 Belka의 사임을 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Belka의 사임이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언론은 이번 개각이 Kwasniewski 대통령과 총리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관측하고 있음. 즉, Belka를 신임했던 Kwasniewski 대통령은 내각의 반발로 Belka의 사임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장관 2명의 경질을 요구했다는 것임.

□ 후임 Kolodko, Belka와 상반된 정책 추진 전망

- Kolodko는 지난 1994~97년 SLD 집권기간에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그 당시에도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했던 전력으로 미루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약 15%의 대폭적인 zloty화 평가절하를 주장한 바 있는 Kolodko는 현 중앙은행 총재인 Balcerowicz와도 극도로 반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폴란드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편, 중도우파로서 EU 가입, 개혁추진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협조적 태도를 보여 왔던 시민강령(Civic Platform)의 Plazynski 총재는 과거 주택건설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는 Kolodko의 부정적 평판이나,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정책 운영의 난맥상 우려 등으로 Kolodko의 입각이 달갑지 않는 표정임.
- 또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집권연정인 SLD와 농민당(PSL)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Kolodko의 등장으로 핵심적 정책과제였던 EU 가입추진과 경제개혁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번 Belka의 사임으로 Miller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신인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앙은행과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짐으로써 경제정책 불균형의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